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 균형잡힌 콘텐츠로 한국문화 정체성 알릴 기회, 조직위 구성-마스터플랜 수립 가시화해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10월 18일 2003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참관하고 돌아온 출판문화협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해 2005년 주빈국 준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장관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와 사진 자료를 관계자들과 분석한 후 "2005년은 우리 문화를 유럽권에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자료를 수집해 정밀 분석하되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주제성 있는 기획을 세워 추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테면 한국의 명저 100권에 대한 번역작업의 경우 주빈국 이후까지 감안, 한국문학의 분류를 세계화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의 경우 우리문화의 역동성과 정신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최태경 부회장이 주빈국 협정서 조인식을 비롯 도서전 전체에 대한 분석을, 국립현대미술관 정준모 학예연구실장이 전시분야 분석을, 국립중앙극장 김동언 공연기획부장이 공연분야 분석을 맡아 인상기와 함께 2005년 주빈국 행사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최태경 부회장은 "러시아 주빈국의 경

우 콘텐츠가 기대에 못미쳤다는 게 중평"이라며 우리나라는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균형잡힌 콘텐츠를 구성해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그 방향은 출판분야를 중심으로 인쇄 종이 사진 미술 디지털콘텐츠 및 현대와 고대의 실물 전시가 축을 이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부회장은 또 북한에 주빈국으로 동반참여할 것인지의 제의여부도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민족동질성·국제적인 흐름으로 볼 때 남북한이 동반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래야 한국문화의 총체성을 세계에 드러낼 수 있다며 동감을 표시하고, 다만 예산이 늘어날 것이므로 예산확보에도 면밀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준모 실장은 러시아의 전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기점으로 현재의 미술까지 망라하는 문화재 사진 연속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며 러시아와 독일의 문화적 특성이 비슷해 관객의 이해를 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문화재 운송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동언 부장은 러시아의 갈라콘서트에 대해 주빈국가로서 내세운 주제와 컨



셉을 정확하게 일치시킨 콘서트였다고 평가하고 지휘자·연주자의 복장을 유럽정통의 연주복에서 탈피해 세련된 감각으로 디자인한 것 등은 러시아의 감각을 돋보이게 한 대목이었다고 고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제와의 통일성, 관객대상별 공연물의 차별화, 작품과 출연진의 최고 예술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창동 장관은 이정일 대한출판문화협회장에게 주빈국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2005년 프랑크푸르트 주빈국 조직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자고 거듭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문화관광부의 이보경 문화산업국장, 박광무 출판신문과장이 배석했으며 출협 국제담당 송영만 상무이사, 정종진 사무국장,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소장, 한국문학번역원 김영룡 팀장, 문학과지성사 김수영 부장 등이 참석했다. ■

사진 박신우 기자